



“승리의 부적 ‘K-MILK’, 올해도 선수들 어깨에서 빛난다”

낙육협,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과 스폰서십 체결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이 올해도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홈구장 바닥 광고 및 선수단 어깨에 부착하는 ‘K-MILK’ 타투 광고를 시행한다.

우리협회는 지난 9월 1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전자랜드 농구단과 ‘프로농구 2015~2016시즌 국산우유 사용인증 K-MILK 후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우유 소비홍보에 돌입했다.



7,194명의 팬이 운집한 이날 행사에서는 손정렬 회장과 유도훈 감독의 스폰서십 체결을 알리는 기념 사진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막식 행사에 돌입했다.

전자랜드 선수들의 어깨에 새겨진 K-MILK 타투 광고는 2014~2015시즌에 처음으로 시작해 실제 K-MILK 마크를 부착한 이후 플레이오프 6강 및 4강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여 선수들과 팬 사이에서는 ‘승리의 부적’으로 통하며, 2015~2016시즌에도 우유소비홍보와 함께 농구단에도 좋은 성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부산 KT와의 개막전에서 전자랜드는 스미스, 정영섭, 정효근 등의 주전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86대 77로 승리를 거두며, K-MILK 마크가 승리의 부적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손정렬 회장은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인천시 학교우유급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인천 지역의 우유급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전자랜드 농구단과 함께 우유소비촉진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